

시간조절 쉼터 3일차(독서)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정 미학’은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개념이다. 바로크 시대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ethos)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음악을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사고는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중세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윤리적 영향력을 중요시하여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 음악의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이 시대의 음악가들은 적극적으로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작곡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작곡가들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후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을 각각의 감정들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였다.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 내는 것일 뿐,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게 된다. 낭만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작곡가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이 음악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감정의 의미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작곡가는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자에게도 작곡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낭만주의 음악에서 음악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 담아내는 것이 중시되면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예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은 ‘음악이 슬프다.’라는 일상적 어법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무생물인 ‘음악’에 ‘슬프다’라는 술어가 적용될 때 ㉡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환기론과 인지론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음악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달랐다.

환기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매트러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내게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로 해석하면서 음악이 아닌 청자를 주체로 보는 것이다. 매트러버스는 음악을 들으며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러한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그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환기론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데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이 ㉢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론의 비판을 받는다.

인지론을 대표하는 키비는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청자가 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주장한다. 무생물인 음악이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음악이 슬프다.’를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현적 속성은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말한다. 키비는 짧은 몇 마디의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단편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그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인지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기론의 비판을 받는다.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도 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의 주체로 음악 내의 허구적 존재인 ‘페르소나’를 상정하는데, 여기서 페르소나는 음악의 형식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져 청자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존재를 말한다. 우선, 로빈슨은 작곡가에 의해 리듬, 선율, 화성 등의 움직임에 감정의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악 속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고 페르소나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청자는 그 감정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로빈슨은 음악이 페르소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청자에게 환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청자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로빈슨은 상상 이론을 통해 인지론과 환기론의 입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가)는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예술로서의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③ (나)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④ (나)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를 밝힌 후 그 관점들을 절충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10.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
- ② 저녁상에 오랜만에 갈비가 올랐다.
- ③ 그 단어는 이번에 국어사전에 올랐다.
- ④ 한밤중이 되어서야 나는 기차에 올랐다.
- ⑤ 등산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올랐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자멸사가 적절히 일어나야 한다. 세포자멸사는 세포가 자기 내부에 있는 효소를 활용해 자신의 DNA와 핵 등을 파괴하는 것이다. 세포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인 괴사와 달리, 세포자멸사는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자멸사는 신체 내 조직에서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기 위해 일어나는데, 울창이가 개구리가 될 때 꼬리가 사라지는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손상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정상적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세포자멸사는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 세포자멸사의 발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손상되거나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등 세포가 손상되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세포 내 Bcl-2 단백질의 농도가 감소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막과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Bcl-2 단백질은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이 감소하며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된다. 이로 인해 방출된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인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데, 이 카스파제가 세포자멸사를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활성화가 먼저 일어난 카스파제-9가 실행 카스파제를 절단하여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실행 카스파제는 세포의 DNA를 절단하여 붕괴시킨다.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 세포자멸사의 유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세포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멸사하게 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타난다.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한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에 결합하여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세포독성 T세포는 세포막에 생긴 구멍을 통해 세포 안으로 실행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 과립효소 B를 유입시키고, 이로 인해 활성화된 실행 카스파제가 DNA를 붕괴시킨다.

세포 내부에서 실행 카스파제에 의해 DNA가 붕괴되면 자멸사한 세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DNA의 사다리 모양이 나타난다. 그리고 세포의 형태도 변화하는데, 먼저 세포가 쪼그라들며 세포의 핵이 분절되고, 세포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파편화가 일어난다. 이후 세포막을 구성하는 2개의 층이 뒤섞이며 세포막에 있는 포스포티딜세린이 바깥쪽으로 노출된다. 이 포스포티딜세린으로 인해 주변의 식세포들이 자멸사한 세포를 인식하고 이를 포

식한다. 자멸사한 세포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새어나오기 전에 포식으로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괴사와 달리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세포자멸사는 비정상적 세포가 제때 제거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한다. 최근에는 세포자멸사를 활용하여 악성 종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세포자멸사와 괴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② 질병 치료 분야의 세포자멸사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
- ③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 상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④ 세포독성 T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⑤ 파편화가 일어난 세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가?

12.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카스파제의 활성이 감소하겠군.
- ②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하면 세포의 자멸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비정상적 세포가 자멸사하여 제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야 하겠군.
- ④ 괴사한 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괴사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이기 때문이겠군.
- 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멸사한 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 생긴 구멍을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보내겠군.

1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세포 내 단백질과 DNA 간 결합이, ㉡에서는 세포 간 결합이 이루어진다.
- ② ㉠에서는 세포 내부의 효소가, ㉡에서는 세포 외부의 효소가 세포의 DNA를 절단한다.
- ③ ㉠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되어야, ㉡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 ④ ㉠과 ㉡에서는 모두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다.
- ⑤ ㉠과 ㉡은 모두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작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 신생아의 두뇌에서는 생후 3개월 동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 세포가 만들어진다. 이후 다른 신경 세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되면서 뇌의 구조가 갖추어지고 뇌가 원활히 기능하게 된다.
- (나) 과도한 자외선이 조사된 각질 형성 세포들은 DNA 염기 구조가 변화해 자멸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한다. 세포자멸사의 조절에 이상이 생겨 DNA가 변이된 세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왕성하게 분열한다면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 (다) 식물 추출물 A를 배양 접시에 담긴 종양 세포 집단에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 카스파제에 속하는 카스파제-3의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처리 후 48시간이 지나자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 ① (가)에서 일부 신경 세포는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멸사하겠군.
- ② (나)에서 각질 형성 세포들이 자멸사한 것은 생존이 불가한 상황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A는 비정상적 세포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세포자멸사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생후 3개월 이후부터, (다)에서는 A를 종양 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세포자멸사가 감소하겠군.

3일차 풀이[解]

독서 정답

1	④	2	⑤	3	⑤	4	⑤	5	④
6	①	7	③	8	②	9	④	10	①
11	②	12	②	13	③	14	⑤		

독서 해설

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는 환기론과 인지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다고 보는 인지론의 입장과 음악이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 보는 환기론의 입장을 절충한 상상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

[오답풀이]

- ①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아.
 ② (가)는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아.
 ③ (나)는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철학자 키비와 매트러비스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지만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
 ⑤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 (나)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환기론, 인지론, 상상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상상 이론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청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

[오답풀이]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이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바로크 시대에는 청자들의 감상이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없어.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바로크 시대를 지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작곡가가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바로크 시대 이전에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바로크 시대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이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낭만주의 시대의 감정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어.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음악이 청자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환기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실제로 감정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론은 음악이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고 청자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

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오답풀이]

-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은 무생물인 '음악'이 '슬프다'라는 술어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지론을 비판하는 환기론의 입장을 알 수 있어.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을 듣는 청자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론을 비판하는 인지론의 입장을 알 수 있어.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작곡가가 만든 리듬의 움직임 안에 감정의 흐름이 담길 수 있다고 봤고, 그 감정의 흐름을 느낀 페르소나랑 청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청자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로빈슨은 ㉔에 나오는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에서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작곡가가 아니라 페르소나와 청자로 볼 거고, 감정의 주체가 변갈아 바뀐다고 보진 않을 거야.

[오답풀이]

- ① ㉔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감정을 느낀 걸, 매트러비스는 청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즉각 감정을 경험한 거라고 설명할 거야.
 ② ㉔의 '슬렷다'에 대해서는, 키비는 음악이 슬픔이라는 표현적 속성을 갖고 있어서 청자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인지한 거라고 볼 거야.
 ③ ㉔의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는 표현은, 매트러비스 입장에선 청자가 음악을 듣고 서러움을 느꼈다면, 그건 음악이 청자에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
 ④ ㉔에서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은 작곡가가 만든 감정 흐름인데, 로빈슨은 이걸 작품 속 페르소나가 경험한다고 봐, 근데 이 학생은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로빈슨 입장에서는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이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5. [출제의도] 다른 견해와 비교하기

혜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음악의 형식적인 요소에 감정이 구현돼 있다고 본 키비의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오답풀이]

- ① 혜강은 음악을 통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는 기존 음악론에 반대했으니까, 음악의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한 중세 음악관에도 반대했을 거야.
 ② 혜강은 음악과 감정 사이의 고정된 대응을 비판했으니까,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대응시키려 했던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도 비판했을 거야.
 ③ 혜강은 감정이 음악 안에 내재돼 있다고 보고 그걸 도덕 유지의 도구로 여긴 기존 음악론에 반대했으니까,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줘서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에도 부정했을 거야.
 ⑤ 혜강은 음악을 들을 때 사람마다 감정이 다른 이유를 음악이 마음속 감정을 끌어내기 때문이라고 봤으니까,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음악의 표현을 설명한 매트러비스 입장엔 수긍했을 거야.

6.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이니까, ㉠과 바뀌 써도 괜찮아.

[오답풀이]

- ② ㉡의 '느끼다'는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 따위를 체험하고 맛보다.'의 의미로, '사라지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자세히 살펴 찾다.'의 의미인 '탐색하다'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
 ③ ㉢의 '담아내다'는 '글, 말 따위에 어떤 내용을 나타내다.'의 의미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의 의미인 '도출하다'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
 ④ ㉣의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로,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가 이루어져 세워지다.'의 의미인 '수립되다'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
 ⑤ ㉤의 '지나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인 '생성하다'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아.

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 따르면,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다지, 따라서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면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과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 건 아니야.

[오답풀이]

- ① 2문단에 따르면,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② 1문단에 따르면,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으며,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세 귀착을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어.
 ④ 2문단에 따르면,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어.
 ⑤ 2문단에 따르면,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어.

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A]에 따르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들지.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재화를 선택해, 따라서 <보기>에서 갑국의 정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와 ㉣ 중,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를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어. [A]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이 크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지. <보기>에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고 했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고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할 것임을 알 수 있어.